月刊

# 정훈

⑪

1975. 1. 28
도서

1-9

國防部 政訓

1975

이근석將軍銅像□(在 空軍2982部隊)

# 北傀「政治保衛部」의 正體

最近 北傀는 金日成 偶像化에 血眼이 되어『代를 이어 忠誠』하기를 全北韓住民들에게 强要하고 있다.

金 峯 玹
(北韓問題 專門家)

## 背 景

지난 二○년간 김일성은 그의 「一人獨裁體制」확립을 위해 政敵들을 무수히 肅淸했고 무고한 수많은 同胞들을 刑場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다.

이같은 肅淸으로 김일성은 공산주의 국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獨裁體制 확립을 이룩했고 그의 偶像化와 한 [illegible]

이러한 제반 조치는 이미 지난 七二년 十二월 새로운 [illegible] 그의 個人崇拜, 個人偶像化까지 사상법으로 [illegible]

[illegible]의 世襲體制를 다지기 위해 [illegible] 것이다.

이같은 숙청체제는 七三年 九월 黨五기 七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장남 김정일을 중앙당의 조직지도 및 선전선동 담당비서라는 권력 핵심에 올려 놓음으로써 [illegible]가 굳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七三년 이후 「대를 이어 충성하자」라는 [illegible]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비서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 한다」는 김정일에 대한 권[illegible]자 호칭이 붙여지고 김정일「노작」학습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일성의 전처 소생인 김정일의 지위가 크게 부각됨에 따라 이미 四九년에 사망한 그의 生母 김정숙을 「김일성에게 무한히 충직한 불굴의 혁명투사」라고 격찬하는등 그의 족벌체제의 우상화를 어느때보다 더욱 격화하고 있다.

북괴는 특히 부모가 혁명가라야 자식도 혁명가가 될수 있다는 비과학적 논리를 적용, 김일성의 증조부 조부모 등의 家系를 혁명가정으로 조작하는 처지에서 김정일을 부각시키는 것은 김일성의 혁명의 시조로 떠받들고 대를 이어 계승케 하려는 속셈에서이다. 이는 김정일의 혁명으로 보아 김일성의 절대권좌를 계속 강화하면서 「金日成主義」를 철저하게 계승시킬 수 있다는 전제이기도 한 [illegible]

「가[illegible]사건」이니 「五번사건」이니 하여 제한없이 총살을 [illegible] 김일성의 권위를 앞세운 족벌정치에 대해서 [illegible] 할 수 없는 실 [illegible] 서약을 하였고 七四년 八월부터는 「唯一思想 十大원칙」 재검토사업을 단행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의 족벌체제를 黨的으로 合理化하는 숙청사업마저 진행하는 등 족벌체제의 절대화를 黨의 공식방침으로 못박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북괴의 김일성 우상화와 족벌체제의 확립은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들의 세찬 반발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에 沮害되는 인물과 요소들을 모조리 제거하며 反金日成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 통치를 강화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 북괴가 새로 고안해 낸 것이 악명높은 이른바「國家政治保衛部」인 것이다.

## 惡名높은 政治保衛部의 任務

이 기구의 母體가 되것은 지나 四六년 二월 이른바「北朝鮮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 되기 시작한 정보공작대라고 할수 있다.

이것은 四七년 二월에 보위국 정보처로 승계되었고 四八년 九월 북괴 정권수립과 함께 內務省 산하로 들어가 특수정보처가 되었던 것이다.

一九四九년 六월에는 內務省의 政治保衛局이 되어 그 산하에 對南事業部·反探部·연락부·機要部와 道州·철원, 양양에 三개과천대를 설치했을 정도로 기구가 강화되었던 것이다.

六·二五動亂이 발발되고 一년, 五一년 三월에 북괴는 戰時 사찰업무의 獨立이 필요하자 이것이 내무성과 사회안전성으로 분리 되었다가 對南공작업무등이 부진하자 다시 [illegible] 그러다가 [illegible] 三년 二월 十五일 이른바 김일성의 [illegible] 「사회안전부」 [illegible]

북괴의 이러한 조치는 한마디로 김일성의 一人獨裁體制의 안정과 이른바「代를 잇는」김정일의 후계자 옹립을 위한 기반을 보다 견고히 다지려는 일환책으로 취해진 것이다.

그들이 이같은 팟쇼 폭압기구인「國家政治保衛部」를 신설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김일성의 族閥獨裁體制를 한층 强化하기 위하여 북한주민들의 계차 증대되고 있는 一切의 反抗요인으로 되는 反김일성 反黨·反體制세력등을 철저히 조직적으로 색출하고 종래 사회안전부가 治安과 反자첩활동 기능을 통합해 수행함으로써 반자첩활동에 대해 억제하고 조직적인 제재를 가할수 없어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던 것이며 그리고 종전까지는 主로 不純계층에 의해서만 실시해 왔던 감시, 통제, 독찰을 이제는 기관 [illegible] 각계조직과 黨·政權의 高位幹部層에 [illegible] 南北對話 [illegible] 會談요원과 住民들이 [illegible]

[illegible] 것이다.

## 組織 및 그 活動

[illegible]「國家政治保衛部」[illegible] 그 組織은 [illegible] 三個조직으로 [illegible] 있는 것이다.

[illegible] 部長밑에 [illegible] 社會統合指揮局 [illegible] 反探 [illegible] 十六개국과 行事호위처, 기술정보처(국내외 有線 [illegible] 보전)등 四個 處로 조직되어 왔다.

또한 지방조직은 각 道·市郡 행정단위별로 정치보위부를 두어 그 아래 조직·호위·지도·예심·통신등 十六개과를 설치하고 道·市에는 二百三〇~三百名이, 郡등에는 책임지도원制로 四〇~六〇명이 있고 里동 주재 정치보위부 지도원 一~四명이 각기관 기업소등에 주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軍系統에 있어서는 그 조직이「人民武力部」에「政治保衛局長」(중장)이, 集團軍에는「政治보위부장」(소장)이, 師團(大佐)과 聯隊(上佐)에 정치보위부장이 大隊에는 政治보위지도원(少佐), 中隊에는 大尉

김일성의 조카인 [illegible]

[illegible]

北韓全域 [illegible]

[illegible]

한다」,「反革命分子와의 鬪爭에서 主動을 쥐고 [illegible] 하라. 위험분자들 다른 지방으로 이주시키는 사업에서는 탄광과 임업부문에 보내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현동농장의 곡식 낟가리에 불을 지르며 사람을 죽이는 자가 있으니 경비병과 같은 것에도 주의를 돌려야 한다는 등 北傀內에 숨어있는 不純세력과 간첩을 색출 한것을 정치보위부에 명령했던 것이다.

활동의 특징은 종래까지는「地主·資本家·民族反逆者」등 이른바 불순계층을 그대상으로 했었으나 南北會談을 계기로 핵심당원 및 黨政權의 고위幹部층에까지 확대하여 전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축 북괴는 이를 요원들로 하여금 제一단계는 七二년二월부터 七三년초까지 주민들의 동태파악에 力點을 두어 실시 되었고 제二단계는 七三년초부터 七四년 六월까지 실시 주로 反金세력의 용의자들에 대한 정보공작은 집요하게 전개하였는데 이를 北傀는 思想戰이라 부르고 있다。

三단계는 七三년六월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용의자에 대한 불적증거 수집을 위한 有·無線도청 및 녹음사업을 은밀히 전개하는 소위 技術戰을 펴면서 핵심·부동·적대세력에서 反金·反黨 행위분자들을 색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북괴는 南北對話의 두개의 통로인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와 남북적십자회담시에 그들 수행원들의 八〇% 이상이 이들 「국가정치보위부원」이었다。 북괴는 이른바 「국가정치보위부원」들을 마치도 平和의 사랑인양 누더머리에 양가죽을 뒤집어 씌우고 對南赤化統一을 위한 각종 정보활동에 혈안이 되었던 것이다。

북괴공작지단은 뻔뻔스럽고 후안무치 하게도 이같은 「정치보위부원」들을 대거 수행원으로 선발해 우리의 각종 정보활동을 공공연하게 했으면서도 남한[illegible]에 기관요원을 계기하라는 등의 수작을 벌고 있는 것이다。

## 新設한 그 底意

[illegible] 으로써 정권세습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키고만장해 있는 것이다。

특히 이때 저대계층으로 낙인찍힌 주민들은 一四九號 [illegible] 산간·오지로 추방했는데 이당시 무려 三 [illegible] 것이다。 그후 북괴는 六六년부터 六八년에 이르기까지 또 한차례 「주민재등록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하여 三개계층으로 분류했던 주민성분구성을 五一개계층으로 재분류하여 이들 주민들에 대한 일거일동을 감시 통제해 오고 있는 것이다。

## 虛構性 은폐의 手段으로

최근 들어 빈번히 생기고 있는 反金사건을 보면 김일성 죽어라 김일성은 범죄자 人民은 굶어 죽게 됐다。 抗日史蹟址는 가짜다 김일성은 가짜다 등의 글이나 구호를 써 붙이거나 삐라를 뿌리는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七〇년 十一월 五차 당 대회 이후부터 김일성의 신격화가 더욱 非理性的으로 전개되면서 족벌정치 체제를 강행하자 모처에서 [illegible]이어 反金 삐라가 나붙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七一년 八월 十四일 沙里院에서 거행되는 八·一五기념행사에 참석키 위해 列車편으로 내려오던

을 단행해 왔던 것이다。

이같은 회의 숙청을 통해 비록 그의 獨裁體制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그간 北傀 住民들의 反金세력은 날이 갈수록 증대 되어왔다。

十여년을 하루같이 줄곧 千里馬의 채찍만 내려치던 北傀가 새로운 千里馬速度와 忠誠의 속도 그리고 새로운 평양속도 속도전이라는 전대미문의 노동착취 口號를 앞세워 北韓 住民들을 몰아붙이는데 대한 불평 불만은 이제 그 절정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서간의 긴장완화 추세와 남북대화에 따른 영향마저 파급되어 이제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사찰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극도로 內面化된 불만은 폭발할 가능성이 짙게 되었다。

또한 이같은 와중에서도 金日成은 주민들의 생활은 아랑곳없이 대외적으로 막대한 외채를 안고 대외신용을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우상화를 위한 선전광고를 게재하면서 對內的으로는 부자간에 [illegible] 君主의 [illegible]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illegible] 있으며 [illegible] 체제까지 확 [illegible]

또한 七三년 七월에는 김일성이 [illegible] 「現地指導」次 함흥으로 가던중 高原郡 부래산 驛 二〇〇m 지점에서 김일성 전용차 통과 직전 TNT가 폭발하였던 사건과 七四년 六월에는 김일성이 [illegible] 「現地指導」 [illegible] 驛 [illegible] 先導車가 [illegible] 있었던 것이다。

북괴는 體制上 [illegible] 기구를 갖고도 미흡하여 이제 이같은 「국가정치보위부」를 [illegible] 고 全住民과 [illegible] 「김일성 교시 관철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생각으로 오직 수령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오직 수령을 위해 투쟁하며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千代 萬代를 이어가며 끝까지 충성」하라고 세뇌시키는 것과 관련시켜 볼 때 이제 김일성 족벌체제의 유지가 어떠한 난관에 봉착해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정치보위부」의 신설저의는 現북괴의 김일성 유일 체제내에 反金日成세력이 점증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로 보이는바 이를 조직적으로 색출하는 동시에 김정일 후계체제 옹립에 따른 북괴 一部 고위권력층과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억압하고 후계체제를 보다 견고화 하려는 조치의 일환이기도 한 것이다。★